



주 제:	“나는 누구인가?”	“사순 제 4 주일“	2010년 3월 14일
복음 묵상:	[루카 15,1-3.11-32]	[여호 5,9 7.10-12]	[2 고린 5,17-21]

오늘 복음에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삶은 축복이며 은총이라고 알려 줍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온갖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었지만, 그런 그가 이제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주린 배를 잡고 과거를 되돌아보며 현재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크게 뉘우칩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루카 15,17-20)]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작은 아들의 발길은 축복입니다. 아버지는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루카 15,20) 아버지의 집으로 발길을 돌린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뜨거운 포옹과 입맞춤, 좋은 옷과 반지와 신발,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받습니다. 이것이 죄 많은 우리들의 회개를 언제나 기다리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큰 사랑입니다. 교형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작은 아들을 품어준 아버지의 그 가슴 안으로 파고듭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품은 참으로 따뜻합니다. 오직 하느님 아버지의 품 안에 머물 때에만 온갖 위로와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대구 김 두찬 신부님 강론에서)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조 문식 베네딕도 형제님이 회복중에 있습니다. 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주님의 도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건강을 빌어 주십시오.
- 주 성숙 리따 자매님이 한국에 제신 부친이 위독하시다는 급보를 받고 급히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주님의 자비의 손길을 내려 주시길 기도중에 꼭 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덕 카리따스 자매님이 아직도 장기/ 투병중에 있습니다. 새해에는 건강하게 돌아오시도록 기도 중에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공지 사항

-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및 미사
사순시기 동안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십자가의 길과 미사가 있습니다. 또한 사순시기 동안 금요일 아침 미사는 없습니다.
- 부활 준비 구역별 판공성사
성당에서 미사 전 (오후 7시) 및 후에 있습니다. 은혜의 시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 서머타임 (Daylight Saving) 시작
일시 : 3월 14일(일)
- 사순 특강
일시 : 3월 19일 (금)
작은 형제회 김 재섭 요한 마리 비안네 신부님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게 하십시오. (사도 3,19)”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제 몫으로 돌아 올 재산을 달라고 청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갈라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거두어 가지고 먼 고장으로 떠나 갔다. 거기서 재산을 마구 뿌리며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돈이 떨어졌는데 마침 그 고장에 심한 흉년까지 들어서 그는 알거지가 되고 말았다. 하는 수 없이 그는 그 고장에 사는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주인은 그를 농장으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하도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워 보려고 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제야 제 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아서 그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어서 아버지께 돌아 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저를 품꾼으로라도 써 주십시오 하고 사정해 보리라.' 마침내 그는 거기를 떠나 자기 아버지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 오는 아들을 멀리서 본 아버지는 측은한 생각이 들어 달려 가 아들의 목을 끌어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하인들을 불러 '어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어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풀어내다 잡아라. 먹고 즐기!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 왔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하고 말했다. 그래서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다.

밭에 나가 있던 큰아들이 돌아 오다가 집 가까이에서 음악 소리와 춤추며 떠드는 소리를 듣고 하인 하나를 불러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하인이 '아우님이 돌아 왔습니다. 그분이 무사히 돌아 오셨다고 주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게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 가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달랬으나 그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종이나 다름없이 일을 하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 주지 않으시더니 창녀들한테 빠져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 버린 동생이 돌아 오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까지 잡아 주시다니요'" 하고 투덜거렸다.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모두 네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 왔으니 잃었던 사람을 되찾은 셈이다. 그러니 이 기쁜 날을 어떻게 즐기지 않겠느냐?' 하고 말하였다."

1분 명상

"법정스님의 유언." -류시화-

시인 류시화는 법정 스님 입적한 날 오후 2 시경 자신의 홈페이지에 '산이 산을 떠나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법정 스님의 유언을 공개했다.

이 글에서 법정 스님은 "절대로 다비식 같은 것을 하지 말라. 이 몸뚱아리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 소중한 나무들을 베지 말라. 내가 죽으면 강원도 오두막 앞에 내가 늘 좌선하던 커다란 넝쿨바위가 있으니 남야 있는 뽕감 가져다가 그 위에 얹어 놓고 화장해 달라.

수의는 절대 만들지 말고, 내가 입던 옷을 입혀서 태워 달라. 그리고 타고 남은 재는 봄마다 나에게 아름다운 꽃공양을 바치던 오두막 들의 철쭉나무 아래 뿌려달라.

그것이 내가 꽃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어떤 거창한 의식도 하지 말고, 세상에 떠들썩하게 알리지 말라"고 지난해 6 월 가까운 사람 서너 명을 불러 절절한 감동의 유언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류시화 시인은 이 글을 통해 "나는 죽을 때 농담을 하며 죽을 것이다. 만약 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거주장스러운 것들을 내 몸에 매단다면 벌떡 일어나 발로 차 버릴 것이다"며 20 여 년 전부터 법정 스님이 해오던 말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법정 스님은 생전에 스님 이름으로 출판된 모든 출판물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며, 사리도 찾지 말고, 탐도 세우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계의 거목 법정 스님(78)이 11 일자로 입적에 들어갔다.